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5. 16.(금) 06:00 < 5.16.(금) 석간 > 배포 2025. 5. 15.(목)

산업부, 국내 업계와 국내 설비투자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 점검

-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민관합동,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 개최 -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16일(금)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진척 현황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하였다.

먼저, 국내 투자현황 점검 결과, 지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2.12)」시 집계되었던 올해 119조원의 투자계획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업종 전반에서 정상 이행중인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업계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이 투자라는 점에 공감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도 임시투제세액공제 적용 등 세제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한 신속한 금융 지원, 지역투자보조금 확대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한편,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최근 영-미, 미-중 무역협상, 의약품 관세부과 예고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업계는 대외 정책변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하였고, 조선은 민관이 합심하여 한미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협회들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활동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임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관세 전쟁 등으로 심화되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남경모(044-203-4210)
		담당자	사무관	홍승범(044-203-421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 개요**

□ 일 시 : '25. 5. 16일(金), 10:00~11:20(80분)

□ 장 소 : KPC(회의실 401호)

□ 참석자

○ (정부) **산업정책실장**, 첨단·제조·공급망국별 과장 1명

○ (협회) 첨단 반도체·배터리·바이오·디스플레이·전자·섬유,
제조 자동차·기계·조선, 공급망 철강·석유화학 각 협회 본부장

□ 논의내용

○ 금년도 국내 설비투자 현황 점검 및 기업 애로사항

○ 각 업종협회별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

□ 진행 순서(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00~10:03	3′	모두 발언	산업정책실장
10:03~11:03	60′	❶ 금년도 국내 설비투자 현황 점검 및 기업 애로사항 ❷ 업종협회별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	업종협회
11:03~11:18	15′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1:18~11:20	2′	마무리 발언	산업정책실장